

대학, 특성화만이 활로이다



이길여 | 경원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니혼대학교 의학부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과정,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를 받았다. 현재 경원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가천학원 실림자,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가천길재단 회장, 사회복지법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이사장,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명예 총재, 경인일보사 회장, 한국어성재단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의학 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국민훈장 목련상, 대통령 표창, 제29회 용신봉사상, 제18회 진리북도 애학대상,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06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 상」, 제8회 합춘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과학기술훈장 창조상 등을 수상하였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내독소의 단일주사로 유발된 실험적 쇼크에 나타나는 내장 및 신장의 혈액학 및 병리형태학적 연구(1977) 와 「꿈은 멈추지 않는다(2002), 「간절히 꿈꾸고 뜨겁게 도전하라(2008)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 악화로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不實)대학들을 골라내 퇴출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며, 통폐합 대상인 부실대학 명단을 연말까지 확정, 발표할 것이라 한다.

재학생 충원율과 등록금 의존율 등 재무지표와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등 교육지표로 구성된 부실대학 판정기준도 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학교 문을 닫는 사립대학에 다른 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들린다.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가 부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97년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그간 새로운 대학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났다. 반면 저출산(低出生) 현상의 영향으로 대학 입학자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해, 많은 대학들이 입학정원도 못 채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에는 대학들이 선발하려는 입학정원보다 고등학생 정원수가 훨씬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 학생들이 편입학을 통해 수도권 대학

으로 빠져나가는 현상까지 맞물려, 지방대학들의 재정난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들이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그간 힘들지 않게 학교운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84%에 달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50~60%선에 머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다.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들에겐 바람직한 현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과잉교육(overeducation)의 부작용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54만 명에 달한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연간 10만~20만개 불과해 청년들이 졸업과 동시에 '백수'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작금의 심각한 경제불황은 이미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대학들에게 변화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불어넣고 있다. 부모들의 실직과 소득 감소로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올해를 고비로 대학 진학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대학들이 살 길은 하나이다.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olumn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걸맞은 개혁과 변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일류대학 따라 하기' 식의 획일적인 발전모델을 벗어나야 한다. 모든 대학들이 서울의 일류대학을 본 따, 학과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한, 지방대학들은 일류대학을 빛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다른 대학이 제공하지 못하는 가치(價値)를 학생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바로 대학 '특성화' 전략이다.

경원대학교는 수년 전부터 'G2+N3 프로젝트'라는 특성화 전략을 채택, 여기에 중점 투자를 해오고 있다. 2개 학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3개 학과를 국내 최고 수준의 학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G2+N3 프로젝트'다. 여기에 선정된 학과들은 입학경쟁률이 매년 수십 대 일에 달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다.

둘째, 산업수요의 변화에 맞춰 교육체계를 개혁해 나가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재뭉을 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직무능력을 갖춰줘야 한다. 대학교육이 산업현장과 동떨어져 신입사원을

재교육시키는 데 매년 수천 억 원씩 쓰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평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원대학교는 산업계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대학임을 자부한다. 바이오나노대학, IT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등 산업수요가 많은 학과들을 계속 신설 육성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또 학생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졸업 전에 모든 학생들이 일정등급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획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대학은 홀로 길을 걸어가는 '폐쇄적인 상아탑'이 더 이상 아니다. 고객인 학생, 학생들을 데려가는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 의 지지와 호응을 얻지 못하면 도태되고 말 것이다. 대학 특성화 전략만이 이런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라 믿는다. ■